急

The Korea Daily News.

Seonl, Korea, Snnday, Oct. 25th, 1925.

In thee, O Lord, do I put my trust. - Psalms,31:1

A Korean View of Pacific Relations. BY HUGH CYNN

At the close of the Russo-Japanese war'

the plea was made that the population was growing rapidly in Japan and that there was enough land yet to be reclaimed and developed in Korea to take care of the overflow for

some years to come, so the then functioning

Korean Government made a joint enterpris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organized the Oriental Company and turned over the

state lands to the company as its share of the stock, with the understanding that Koreans and and Japanese are to share alike in the benefits.

Later when Korea was annexed, the Korea Government was gone and the company became wholly Japanese. Since then, the company with

its immense resources together with its annual subsidy from the governmet has been a giant master to the Korean agricultural populace. It gave every inducement and preferment to the Japanese farmers to move into Korea.

The immigrants are provided with travelling expenses and capital to buy seeds and implements. When they are given dwellings and also land

that up to the time had been cultivated by

Korean farmers, and financial arrangement are made so that the imminigrants will in from five to twenty-five years' time become the

owners of the land: In some cases as many as five hundred Korean tenant households were

notified to move out in order to make room for fifty Japanese immigrant households. Race confilet becomes inevitable and bloodshed occurs in not a few cases. When they are evicted,

the Koreans migrate to distant parts of Manchuria, and many die on the way through

hunger and cold. When they reach their destination in Manchuria, they come into another

conflict with the Chinese. There are many other such organizations, and when the pres-

sure is too great through increasing obligations, the Korean small farmers find little alternative to selling their lands and moving on. The

staggering problem before us is to make these.

**小の**身疾薬ご全國及滿鮮各地薬店が災合いい

廿錢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申與雨

文 / 欄

processes at least non discriminative.

不太洋問題 例 關 的 朝鲜 觀察 (完)

招い集め

所近大原は のコンドラー のコンドラー のコンドラー のコンドラー のコンドラー のの音が子を一 のの音が子を一 のので、 のの音が子を一 のので、 のの

おり、一般の表現のでは、一般の表現のでは、一般の表現のでは、一般のでは、

か 此可小作

一般人士外の稱類한中日母 一般人士外の稱類的中母 一般人士外の稱類的中母 一般人士外の稱類的中母 一般人士外の稱類的中母 (巨齊)

及時勢

日堤

支

局會

{演

會

 $\Diamond$ 

**錢、**普通二十**錢學生小** 木女男具店橫側大廣塲

◆大場無料 ○大場無料 催 三八十代

者慰安活動寫眞大 朝鮮日報 日報社仁川古公立入場券持念人可以 伎 座 支局

會

お作不と梁地主作人의 願い 豆

朝鮮少年軍總本部活動寫眞隊Ⅰ 道のお映畵盛况

20 後 不 可以の 10 日本の 20 日

内域・中日半の自轉車隊探勝團 自轉車隊探勝團 音神車隊探勝副 音曲車隊探勝副 音曲 音曲 音組織か。去十八日南處 音組織か。去十八日南處 音組織が。去十八日南處 音組織が。去十八日南處 である二十日散歸が八日中 で、在一八日南處 で、在一八日南處 で、在一八日南處 で、在一八日南處 で、在一八日南處 で、在一八日南處 で、在一八日南處 で、在一八日南處

日 ○順川金組評議會 來二十六日 中後三時第四回評議員會景開計 コ組合員加入及資金借入의件 音討論大會三事前列依可中电込은 今二十五日外以至可互討論은來 三十日是延期하失中五(至州) ○開城衡平分社總會 去二十一日下午一時同會館5分社員三十餘名이모려臨時總會臺貿五陰九月二十日紀念祝賀の對한路般时 次毫决議하父中立

できるが李陸上大運動會できるが李陸上大運動會で来二十七日同一会のが東二十七日同一会のである。 下河平原 西北個人庭球 

日午前十一時早已該校運動場の大変一般概答り雲集計の空前의を次のでのでは、

全成激句더킨다더라(宣川) 學院數學學院 實際可見會的 發生附近洞里愛民百餘名의朱納 發生附近洞里愛民百餘名의朱納

日午前十一時早日該校運動場の 公立普通學校5 メモスセニナニー

三叶 支局長李寛用氏の 熱烈社報解停急期計の西北個人庭球大報解停急期計の西北個人庭球大 金泉少年庭球會是來三十一日的金陵市年會館至一一三5分開催한中三四參加資格。 公金泉少年的限矿工加入金马母和金帛少年的限矿工加入金马母和多拾錢可可以(金泉) ● 場構公・普運動場が対力で・時早日該校運動場が対力で・時早日該校運動場が対力を・日本ので</l

心期日 十月三十日外入平會聯盟創立準備會 心場所 豬 澳青年會內海

柳京春、吳聚濟、鄭洙天流備委員

移院紀念の豆

湖里驛新設

おユニー土日頃の泰天の着から直時熱河馬氏量防備刃為から脈の世率軍第十一師

に集

義州農產品

ま十三日早ご起工 新設計の学生ので表 新設計の学生ので表 新設計の学生の意識を 中間の介在可義湖里の停車 中間の介在可義湖里の停車 中間の介在可義湖里の停車 等各里民七百餘名의通署 等各里民七百餘名의通署 等格里民七百餘名의通署 等格里民七百餘名의通署 等格里民七百餘名의通署 等格里民七百餘名의通署 等格里民七百餘名의通署 等格里民七百餘名

(五十五) (화명진) (水品金)

**张宏基金峰焕共吴商舍** 賽友樹木報支局各二週

充岩



孟の日を立り合思

四四乙十四世丛卫

電車の

乞兒轢

다시일 오후다성시 반정에시 지사현 (內四斯町)과출소에 다시 내자회(內四斯町)과출소에 다시 내자회(阿米照町) 이당 이는 박가운 바에 두발빈남 나무취이는 시대하나를 발견

다오의 상한시 지고다리난후경향각디로다니며 지고다리난후경향각디로다니며 수십회에서행한후급면추기에는 상주군(楊州郡)일대를변당하면 서각동리구장(順長)불안당하면

웃 고

십건

水

'상으로' '사다는 가 다 그 가 지금 연화'

었다그

상이로 턱의상이로 뜻합니다

나가르면 살겠지!

우

突忠壇の

怪屍體

환원하야상고의원시시대단 의망일것이다 이 1·가련 하 인기 1·

**に 거 & 七巻** 

일도만라

外や台 ガテンス

병의 등이 본지는 이지려운도가 집이라고차커가서 유효배를 가지하는 이 무지도라다니다 가지 않는 바로 바로 하는 이지려운도 기계를 하는 기계를

**父단점의「병절」여시** 

시 생각은 또다시 수습할

들떠나 신룡산(新龍山) 으로 하는 여륙십이호면차가 종로 하는 여륙십이호면차가 종로 얼지움에 따출 면차길을가로 되가려하는 거지아이(乞턴) 명과 충돌하야 그아이는도진 (腦魔術)을림이 한동안되지안호 당을 일이키었었는데 피해자 등을 일이키었었는데 피해자 기구당을 비뜨리게 되었다.

에

仃並者

보기진에는 확실히 알기어하며 시대가 무취잇습으로 의 구별도 알기어려우나당 무존된발을 보아서는남자

偽造手形으로

이 어머니 바이네

을 수색중이라더라 기 있습으로시내각회

世の音

준다하고 급진을 편취한학자

보이이미 커무릿습으로그 진것을 보면라살인것이 분 이로 본영경찰서에서는 방

급년에는수재(水災)한재(旱災) 금년에는수재(水災)한재(旱災) 중재(蟲災) 로발미암아농작물의반분도수확할여디가 업기되여 위반농민들은메일 불안중에 사려있는 라인데 컨남 (全南)과((光州)의 부현 정사 (全南)과((光州)의 부현 정사 (소南)과((光州)의 부현 정사 (소南)과((光州)의 부현 정사 (소南)과((光州)의 부현 정사 (소南)과((사))의 부현 정사 (소南)과((사))의 부현 정사 (소南)과((사))의 부현 정사 (소리)의 (사)

慶

州

古

蹟

見學團

員募集

아 하는 최영준이요 못있는최영준이 아이던 무엇을 크리어그가자기의 차는사람일까보아 담녀 하며 하십 내는고? 그리면 최영준이 가 배로 그일가보다 사람은 구하고사랑하되인 기계를 가고 기라는 생회가 됐하되고 기리를 위치고 기리는 생회가 됐하되고 기리를 위치고 기리를 위치 기리를 위

함이같은 차림이 데려워서그리 함이같은 그러리하면 살팔고의 상하며 사랑에 귀친이엄마한 등고생

◇異空水治療法器(一具)金 ◇包蓋水全自療器(一具)金 ◇生殖器能養最內服器等(中月 ※生殖器能養最內服器等(中月)金

八名譽大金 的受領司 英全水治療法器不完全構造料雜司 獨式 真空治療器有不完全構造料雜司 獨式 真空治療器有(4) 月分 金 四 圆(桶 民 地五十錢)

電腦長北五一六八·接替大阪五七九九 京新療法研究所於職人版市常島中二丁目三二電車中門西入 東新療法研究所電話屬輪六六六六·振替東京七七三九 京新療法研究所東京之區愛宕下町三戶四(增養輔計前) 東新療法研究所完全實驗例附屬化明書 申込 次第無代皇賓簽督◆實驗例附屬化明書 新聞名記入無代皇賓簽督

◇探勝時期

◇参加會貴

自家用酒洗

中申

請期

京城旅行案內社

後援

朝鮮日報社

화호리 (龍北面末湖里) 구성원 (具成日) 김창수(金昌洙) 량 있는 지난십일일에 그곳주자소 정관 바로정을 경찰성 (金昌洙)량 씨는 (金昌洙)량 씨는 (조鲁洙)량 씨는

新校長被殺 는 오월 지원 등 어디 이 비를 보여 기를 모음 말이 그 가을 다 이 그 가을 다 이 그 가을 다 이 그 가을 다 이 한 만 다일 부 부 병 승 하 자 업 린 십리 리 월일 히고 이 재인 일 은 려 면 세 느 다 여 천

이 아이트하다 되일보도되는 무안도초 소작쟁 이 자리의 로봇사상정

公普當局者



명준이와가를 인력기군을 보았다는 단순한 사실이이 회원도본 신이의 마음을 산란하게하는것 으부슨성유인고? 최명은 이외 가른인력기군이 아니라 그이력 게 우습을벌고 소리를벌다 들아 돈을낚시질하였다. 이에도 만족지못하여였다. 우승을벌교 소 내 그리하아

領受力器と療治水空眞 牌金 大響 名位 第一 む 下閣助退垣板 留伯 長會 生先子男珍田前 士姆學證 問顧 領受會進共明發國帝四一第

下限助退工板 III伯 長會 生先部三津久阿土地學選門顧 領受急進共少褒國帝回二第

司と合計五個의特許権善下附可一過空의害、遺精、夢精、早海、陰金牌量數個受領하コ我政府呈早一生殖器短小를愛育引的事業及外の開共進留的分最位行聚大一經를使用하入四點の呈文和公司學、經過使用하入四點の呈文和公司學、經過使用的人四點の呈文和公司學、經過使用的人四點の呈文和公司學、經過使用的人四點の呈文和公司學、經過一門大家三十餘氏의實驗御證明斗人生最高의愉悅斗幸福善奪去計「ユ华八大醫學は二言當始計の專一人生最高의愉悅斗幸福善奪去計「五华八大醫學は二言當始計の專

八大醫學博士 實驗證明과 讃辭甲老号 防止精力 号旺盛み刊 質験者の 感謝 禮狀 續續來

表弱의

지 은아니다 가입니다 라면 무진에 기 동정을하기로말하면 문진에 비는동 당아치에게도 뜻이스면 능히베 풀지니 동정이로살랑이면 능히베 남편이며 안해라하아 서로의지

화가아니니 돈꾼均는게 자 인정이쉬밖을 주스라다니 자

이 이 에상의 효박한

배골은 최종준이를 만나면하지 그먹이 짓다는말이나 이것이 곳도리와 의리라는사람의 량심이나지 한것 동정들에 지나지 안는일이라 한것 동정들에 지나지 안는일이라 한것 동정들에 지나지 안는일이라 보건한 목사람이 되었다.

際眞空水治療法器의 0 一殖器

◆代金引換送料十三錢 ●館金且文法料 八 錠 振替東京四九四八四 一上東京麻布富士見町六 一上

에게 당당성를 빌리라는교원들 인 사방님의 혈수할수입게되면 사방님을 살려드리기위하여 자 기가 따라가지고있는 세유치라

나는 한국 생각하고 실정도그리는 처리도해야만되겠다는 건지 마유엔업지만 의리로그리다 나는 가지 하는 그리다

다만지금이라도

**8元がけた** 

연 정답기 나가서마커드러타기이불요우에안치고 뗏날과가리디서바님~ 등이라는소리가입에서 도 의로이아닐수가업첫다 봉선도 의로이아닐수가업첫다 봉선 의지금먹으셨지만 다만 자기가

인 정답기 나가서?

豊満むユ艶麗が香間が開発を一面も拾銭

毎月定價 

本店の

五五十五 圓 五八十五 工能手寄る。物有

수업시 허르퍼졌다 런화는 봉선이가 얼이바뀌안 해가 당신이가 얼이바뀌안

開 業三 マルガラ マカラス ラカス

四上州八十五圓婚禮用具各種其他雜貨

年記が年紀の後日の後日